

AI ENGINEERING · 2026.05.22

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획 및 개발 방법론

한솔 HCLP 2년차 사전교육 · 4시간 단일 트랙

- PKM
- 리wai어링 5단계
- 에이전트 3단계 진화
- System Prompt
- Cowork 핸즈온

PRESENTER
김혜련 · artetlab

SPEAKER

강사 소개



김혜련 Kyra Kim

이노핏파트너스 프로젝트 교수 · artetlab 대표

- AI Automation
- Make.com · n8n
- Claude Code
- Agent Engineering

저서
『당신의 첫 AI 직원』
서울경제경영출판사 · 2026.02

커뮤니티
GPTers 스터디장 (16~21기)
AI 자동화 커뮤니티 운영

- 주요 강의 이력**

 - LG AX Camp for Leaders (임원교육)
 - 멀티캠퍼스 — n8n AI 자동화 실전
 - SKT Design Camp · Dify 교육 코칭
- LG U+ 리더 AI 업무자동화 심화 교육
 - 세계일보 Vibe-coding 코칭
 - KCH그룹 인사총무 AX 파일럿 외 다수

OPENING — 업종을 막론한 갈림길, 두 거인의 선택

2024~2025년, BASF는 R&D 자산을 AI로 통합했고, DuPont은 사업 자체를 셋으로 쪼갰다

같은 LLM 시대에 글로벌 화학 1위 BASF와 전통 강자 DuPont이 정반대 길을 택했다. 화학 업계 이야기지만, 제지·소재·물류·전자 — 업종을 막론하고 똑같은 갈림길이다. 무엇이 갈랐는가?

BASF (독일, 세계 1위 화학사)

"100년치 R&D 자산을 AI에게 먹였다"

2024년 R&D 투자 €2B(화학산업 1위). 신규 특허의 23%가 디지털·AI 관련. — **AI 리액터로 화학 실험을 수동 대비 20배 빠르게 수행.** 4억 건의 문헌·특허·내부 보고서를 AI로 검색하는 **QKnows 사내 플랫폼** 운영. 'BASF GPT'를 R&D에 배포.

DuPont (미국, 전통 강자) — 다른 길

"통합 시너지를 포기하고 셋으로 쪼개기"

2024.5 — 소재·전자·물 3개 독립회사로 분할 발표. 2025.1 계획 수정해 전자(Qnity Electronics) 분할 2025.11 가속화. **"하나의 통합 화학 거인"에서 "각자도생"으로 전환.** R&D 자산을 가로질러 활용하는 통합 모델 자체를 접은 셈.

한솔 임원에게 묻습니다 — 당신 부서의 영업·기술·운영 자산은 지금 BASF처럼 정리되어 있습니까?

한솔은 화학사가 아니어도 본질은 같습니다. 한솔제지의 영업 이력, 아이원스·테크닉스의 기술·품질 데이터, 한솔로지스틱스의 운영 매뉴얼이 곧 BASF의 '정리된 자산'
— 오늘 4시간은 본인 부서를 그 트랙으로 옮기는 사고 토대입니다. 마지막에 이 두 거인을 다시 만납니다.

00

CHAPTER

도입 — 왜 PKM부터인가

교육이 끝나고 돌아가서 일이 정말 바뀌려면, 폴더부터 정리되어야 한다

오늘 4시간 후

어수선한 다운로드 폴더에서 시간을 읽는 업무 매뉴얼로

이론 강의가 아닙니다. 돌아간 다음 주의 일을 바꾸는 시간입니다.

임원의 어제 vs 1 주 후

같은 폴더, 다른 일

어제 · 어수선한 다운로드 폴더

- 200여 개 파일 시간순 누적
- 파일명: report_v3_final_real.pdf
- "그 자료 어디 있더라"가 일과의 30%
- AI에게 맥락 설명 매번 처음부터
- 결과물 품질이 매번 들쭉날쭉

1 주 후 · AI가 읽는 업무 매뉴얼

- OKR · 프로젝트 · 자료별 폴더 트리
- 파일명: 한솔제지_영업일일보고_2026Q2.md
- AI가 폴더 구조만 보고 업무 범위를 안다
- 프로젝트 지시사항이 AI의 업무 매뉴얼
- 결과물 품질이 안정화된다

“

내 업무를 AI에게 통째로 넘기려면,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?

오늘 4시간의 복극성 질문
모듈 1~7은 모두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
오늘 4시간 로드맵

사고 → 손 → 설계 → 적용

45'

사고 토대

M0 도입 + M1 리와이어링 5단계

30'

개념 정렬

M2 에이전트 3단계 + Tool Calling

65'

손으로 체험

M3 PKM + M4 Cowork 핸즈온

80'

설계 + 적용

M5 System Prompt + M6 4종 + M7 합속안내

총 240분 (휴식 20분 별도) · 오늘 참여 한솔 8개 계열사 · 계열사 맥락 예시 골고루

전체 여정

5/22 → 6/9~11 합숙으로 가는 길

5/22 (오늘)	사전교육 — 사고 토대 구축 리와이어링 5단계 + 에이전트 진화 + PKM 첫걸음. 합숙장에 빈 손으로 가지 않기 위한 4시간.
5/23~6/8	본인 폴더 정리 + 분반 설문 다운로드 폴더 정리 30분 + 본인 업무 1개 리와이어링 메모 + 분반 설문 회수.
6/9 (화)	합숙 입소 · 오크밸리 (원주) 2박 3일 합숙 시작. 첫날은 입소·오리엔테이션·분반 확정.
6/10~11	Agent 교육 Day 2·3 — 4종 에이전트 커스터마이징 분반 4개. 70% 완성본 + 본인 부서 KPI 30% 커스터마이징. Day 3 종료 시점에 본인 에이전트 1종을 들고 복귀.

01

CHAPTER

리와이어링 5단계 프레임워크

기존 업무 흐름의 전선(Wire)을 AI 쪽으로 새로 꽃는다

리와이어링이란

전선을 **AI 쪽으로** 새로 꽃는 일

"새 시스템을 도입한다"가 아니라 "기존 업무 흐름의 어느 한 지점을 AI로 갈아 끼운다".
부서 단위 빅뱅 대신, 업무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.

리와이어링 5단계

AS-IS → 포인트 → 설계 → POC → 임팩트

1

AS-IS 매핑

현재 업무를 분 단위로 그린다

2

포인트 식별

사람 vs AI 영역 가른다

3

설계

입력·출력·결재선 정의

4

POC

1 주 안에 돌려본다

5

임팩트

시간·비용·품질 3축 측정

이 5단계가 6/10·11 합속에서 본인 에이전트 1 개를 디벨롭하는 표준 절차가 됩니다.

※ POC = Proof of Concept(개념 증명) — 본격 도입 전 작은 규모로 "정말 되는지" 먼저 검증해 보는 시범 단계.

STEP 1

AS-IS 매핑

① 무엇을 그리나

현재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**분 단위**로 그린다. "팀장이 메일을 보낸다 → 실무자가 엑셀을 연다 → 데이터를 복사한다..."의 흐름.

② 왜 분 단위인가

덩어리("보고서 작성 2시간")로 보면 어디를 SI로 바꿀지 안 보인다. 분 단위로 쪼개야 "이 15분은 SI가, 이 5분은 사람이"의 판단이 가능해진다.

③ 임원의 관점

실무 흐름을 직접 그리진 않아도, "내가 결재 도장 찍기 전 단계가 어떻게 굴러가나"는 알아야 한다. 모르면 SI 적용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없다.

STEP 2

포인트 식별

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부분

최종 판단·이해관계자 설득·책임 서명. 이 영역은 AI가 보좌하되 결정은 사람이 한다.

② AI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

데이터 수집·정리·요약·1차 초안 작성·반복 모니터링. "사람이 하면 지루한데 매번 해야 하는" 작업이 1순위.

③ 포인트 선정 기준

시간 절감 × 빈도 × 표준화 가능성. 한 번 만들면 매주 돌릴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푼다.

RPA·AI 에이전트 — 어느 쪽이 맞나

"고비용·저효율 업무"가 보이면 무조건 AI 에이전트가 아니다. 규칙성과 예외성을 따져 도구를 선택한다.

판단 축	RPA가 유리	AI 에이전트가 유리
규칙성	고정 규칙으로 표현 가능 (조건문 100%)	맥락·누앙스·판단 필요 (조건문 불가)
데이터 구조	표·필드명 고정 (정형)	문서·메일·녹취 (비정형 多)
예외 빈도	예외 거의 없음 (<5%)	예외가 일상 (20%+)
승인 필요성	승인 없이 자동 처리	사람 확인·결재 흐름 필요
ROI 회수	월 100건+ 반복	건수는 적어도 1건당 효과 큼

한솔 예시: ERP 전표 입력 → RPA. 영업소장 일일보고 작성 → AI 에이전트 (한솔제지 케이스).

STEP 3

설계

① 입력 (Input)

AI에게 어떤 데이터를 줄 것인가. 어디서 가져오는가. 형식은 무엇인가. → PKM 정리가 여기서 진가를 발휘한다.

② 기대 출력 (Expected Output)

결과물의 형식·길이·톤·필수 항목을 미리 정한다. "잘 해줘"가 아니라 "표는 3행 5열, 요약은 5문장 이내".

③ 결재선 + 예외 케이스

누가 검토하고 결재하는가. 데이터가 비었을 때, 평소와 다를 때 AI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.

STEP 4

POC — 1주 안에 돌려본다

① 최소 작동 버전 (MVP)

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"한 번 돌아가는 것"이 목표. 70%만 자동화돼도 충분하다.

② 실제 업무 데이터로

샘플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. 진짜 데이터에서만 진짜 문제가 보인다.

③ 1주 vs 1분기

"분기 프로젝트"로 만들면 평생 안 나온다. 1주 안에 돌리고, 매주 한 칸씩 다듬는다.

STEP 5

임팩트 — 3축 측정

① 시간 (Time)

전: 주 6h → 후: 20분. 절감된 시간을 어디에 재투자할 것인지까지 묻는다.

② 비용 (Cost)

인건비 환산. 한솔제지 영업 일일보고 예: 연 4,500만원 절감. 임원에게는 이 숫자가 의사결정 언어.

③ 품질 (Quality)

결과물의 일관성·누락률·검토 통과율. AI 도입 후 사람의 검토 시간이 줄었는지가 진짜 품질 지표.

계열사 예시 ①

한솔제지 — 영업소장 일일보고

※ 19~22페이지 계열사 예시는 업종 맥락을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 시나리오입니다. 수치·절차는 실제 계열사 업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AS-IS · 전형적 시나리오

- 영업소장이 매일 1.5h, 거래처별 매출·재고·이슈 수집
- SAP 데이터 다운로드 → 엑셀 정리 → 메일 작성
- 일정한 양식 없이 소장별로 들쭉날쭉
- 본사 영업본부장이 받아서 다시 통합 정리

TO-BE · 리와이어링 후

- SAP 데이터 자동 추출 → AI가 표준 양식으로 일일보고 초안 작성
- 영업소장은 15분 검토·코멘트만
- 본사 자동 취합, 임원은 그룹 단위 요약본만 본다
- **1.5h/일 → 15분/일** · 연 4,500만원 절감

↳ **같은 패턴 확장 — 한솔에코패키징:** 친환경 포장 수주·생산 일일 현황 리포트도 동일한 '리포트 메이커' 구조로 자동화됩니다.

계열사 예시 ②

한솔로지스틱스 — 화주사 문의 응대

AS-IS · 전형적 시나리오

- 화주사 PM에게 "내 화물 어디까지 갔어?" 카톡·전화 일 30건
- PM이 TMS 조회 → 답변 작성 → 회신 (건당 12분)
- 응답 SLA: 평균 6시간
- 야간·주말은 다음날 처리

TO-BE · 리와이어링 후

- 화주사 전용 채널 → AI가 TMS 조회 + 화주사 톤으로 자동 응대
- 예외 케이스(지연·사고)만 PM 에스컬레이션
- **응답 SLA: 6시간 → 30분**
- PM은 진짜 전략 PM 업무에 집중

↳ **같은 패턴 확장 — 한솔PNS:** IT 헬프데스크 사내 문의 자동 응대도 동일한 '자동 응대' 구조로 적용됩니다.

계열사 예시 ③

아이원스 — 반도체 전방시장·고객사 동향 모니터링

AS-IS · 전형적 시나리오

- 영업기획팀이 격주마다 5시간 반도체 업황·고객사 투자계획·경쟁사 동향 수집
- 영문 IR·뉴스 자료 번역·요약 → 임원 보고서
- 임원이 알기 전 이미 2주 지남
- 고객사 증설·감산 발표가 있어도 다음 주기까지 놓침

TO-BE · 리와이어링 후

- 매일 새벽 시가 경쟁사 6곳·핵심 키워드 30개 자동 스캔
- 평소와 다른 신호만 임원에게 푸시
- **격주 5h → 실시간 감지**
- 고객사 증설·신규 발주 D+1 인지

↳ **같은 패턴 확장 — 한솔테크닉스:** 전자소재 시장·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도 동일한 '마켓 워치' 구조로 적용됩니다.

계열사 예시 ④ & ⑤

한솔홈데코 · 한솔홀딩스

④ 한솔홈데코 — 매장 매출 리포트

전국 매장 일일 매출 요약

전: 본사 영업관리팀이 매일 2h, POS 데이터 통합·표준양식 작성
후: SI가 자동 통합 + 이상치 매장만 코멘트. **2h → 10분**

⑤ 한솔홀딩스 — 그룹 의사결정 리포트

계열사 5곳 주간 통합 보고

전: 그룹 전략팀이 주 8h, 5개 계열사 자료 취합·통일
후: SI가 양식 통일 + 변화점 자동 추출. **주 8h → 1.5h**

합속 연결: 이 5단계 사고틀이 6/10·11에서 본인 에이전트 1개를 디벨롭하는 표준 절차가 됩니다.

02

CHAPTER

에이전트 3단계 진화 + Tool Calling

챗봇 → 어시스턴트 → 에이전트.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?

AI 도구의 3단계 진화

챗봇 → 어시스턴트 → 에이전트

1

챗봇 (Chatbot)

질문하면 답한다. 맥락은 매번 처음부터.

2

어시스턴트 (Assistant)

문서·파일을 같이 본다. 결과는 사람이 옮긴다.

3

에이전트 (Agent) (현재)

파일을 읽고, 판단하고, 실행하고, 결과물을 만든다.

합속에서 만드는 4종은 모두 3단계 에이전트입니다. 챗봇·어시스턴트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.

1 단계

챗봇 (Chatbot) — 질문하면 답한다

— 작동 방식

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 → AI가 자연어로 답변. 단발성 대화.

— 한계

파일을 읽지 못한다. 매번 맥락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. 답을 받으면 사용자가 직접 다음 행동을 한다.

— 임원 일상 예시

ChatGPT 무료 버전에 "회의록 작성법 알려줘"를 묻는다. 답을 보고 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— 시기

2022년 말 ChatGPT 등장 시점.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기 머물러 있다.

2 단계

어시스턴트 (Assistant) — 문서를 같이 본다

— 작동 방식

파일·PDF·이미지 업로드 → AI가 내용을 읽고 분석·요약·답변.

— 진화 포인트

"네가 직접 봐"가 가능해졌다. 맥락을 말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.

— 한계

한 번에 한 작업. 결과를 받으면 내가 다음 시스템(이메일·슬랙·노션)에 옮겨 붙여야 한다.

— 임원 일상 예시

"이 회의 녹취록 정리해줘" → 정리본을 받아 내가 메일로 보낸다.

3단계 (현재)

에이전트 (Agent) — 읽고, 판단하고, 실행한다

— 작동 방식

파일을 읽고 → 어떤 도구(검색·계산·이메일·DB)를 쓸지 스스로 판단 → 실행 → 결과 종합 → 결과물 생성.

— 핵심 진화: 도구를 직접 켜다

사람이 "이 도구 써"라고 시키지 않아도, AI가 필요한 도구를 골라서 호출한다. (Tool Calling)

— 임원 일상 예시

"이번 분기 회의록 30건 다 읽고, 반복되는 이슈 5개 뽑아서 본부장 보고용 슬라이드 초안 만들어줘."

— 이게 바로 합속에서 만드는 4종

리포트 메이커·마켓 워치·PM 코파일럿·노트 마스터 모두 3단계 에이전트입니다.

Tool Calling 한 줄 비유

AI가 망치· 드라이버를 직접 친다

예전엔 사람이 도구를 들고 AI에게 결과만 묻는 구조였다면, 이제는 AI가 도구함을 보고 필요한 것을 직접 골라서 쓴다.

— "검색해야겠다", "엑셀 열어야겠다", "DB 조회해야겠다"의 판단이 AI 안에서 일어난다.

임원 일상 비유 ①

회의록 — 3단계 차이

챗봇

"회의록 잘 쓰는 법 알려줘"
→ 일반론 답변. 내가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어시스턴트

"이 녹취록 파일 정리해줘"
→ 1건의 회의록 초안. 내가 메일로 발송.

에이전트

"이번 분기 회의록 30건 다 읽고, 반복 이슈 5개 뽑아서 보고용 초안 만들고 노션에 저장해줘"
→ 결과물까지 자동.

임원 일상 비유 ②

시장조사 — 3단계 차이

챗봇 "아이원스 경쟁사 알려줘" → 일반 정보 답변. 일회성.	어시스턴트 "이 경쟁사 IR 자료 요약해줘" → 1건 요약. 내가 다른 보고서에 옮긴다.	에이전트 "매주 월요일 아침, 경쟁사 6곳 뉴스·특허 자동 수집" → 변화점만 메일로 보내줘" →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매주 도는 모니터링.
---	--	--

임원 일상 비유 ③ & ④

진척 관리·고객 응대

③ 진척 관리 (한솔로지스틱스 PM)

"리스크 사후 발견" → "선제 감지"

- 챗봇: 리스크 관리 방법론 검색
- 어시스턴트: 이 프로젝트 일정표 분석
- 에이전트: 매일 새벽 모든 프로젝트 진척 데이터 자동 스캔 → 지연 신호 발견 시 즉시 PM에게 알림

④ 고객 응대 (한솔홈데코 영업)

"받은 후 응답" → "자동 응답 + 예외만"

- 챗봇: 고객 응대 매뉴얼 안내
- 어시스턴트: 이 문의 메일 초안 작성
- 에이전트: 화주사 문의 자동 응대 + 사고·지연 예외만 PM 에스컬레이션

임원 일상 비유 ⑤

전략 의사결정 — 3단계 차이

챗봇 "M&A 검토 시 봐야 할 것" → 일반론. 내가 직접 분석.	어시스턴트 "이 회사 재무제표 분석해줘" → 분석본. 내가 다른 자료와 종합.	에이전트 "이 인수 후보 3사" → 재무·시장·기술·문화 4축 비교 보고서 만들고, 추천 의견 + 근거까지 자동 제출"
--	--	---

합속 연결: 6/10·11에 만드는 4종은 모두 3단계 에이전트입니다. 챗봇·어시스턴트 단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.

PKM이란 무엇인가

Personal Knowledge Management의 의미가 바뀌었다

— 과거: 내가 찾으려고 정리한다

검색·기억 보조. "어디 뒀더라"를 해결하기 위한 분류 체계.

— 지금: AI가 읽고 일하도록 정리한다

폴더 구조가 AI의 업무 범위가 되고, 파일명이 AI의 추론 단서가 된다.

— 그래서 임원에게 PKM이 더 중요해졌다

바쁘다고 정리를 미루던 시절은 끝났다. 정리되지 않은 폴더는 AI에게 일을 못 시키는 폴더다.

— 한 줄로

PKM = AI가 읽는 업무 매뉴얼

